

기고



이숙재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학박사

설 선물은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설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들을 찾아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예상되는 엄중한 시기로 금년 설의 대명제는 건강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 자제와 함께 비대면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권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백신주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김치가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몇 해 전 사스(2002년)와 조류인플루엔자(AI, 2009년)가 유행할 때 한국인이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보인 것은 '김치'라는 설이 많았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실험결과들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결

과, 김치추출물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의 플라그 형성을 현저히 억제했고 생쥐에 AI를 감염시킨 후 경구투여(1일 50mg/kg)했을 때 바이러스에 의한 체중감소 억제와 생존율을 30%이상 높였으며 2015년 영남대학교의 연구결과, 김치추출 유산균에서 메르스 등 코로나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아토피 같은 면역질환의 신약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옌 65' 균주는 가축 사료의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김치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감염의 차단에 최선을 다하면서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식의동원(食醫同源)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즉 식(食)과 의(醫)를 한 뿌리로 보고 바이러스 연구에서 검증된 김치의 효

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꾸준한 섭취를 통해 내 몸 스스로 건강유지를 할 수 있는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고장 광주광역시에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의 중심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한다면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물이란? 오래된 미풍양속으로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의 정성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고르거나 받기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 시대의 흐름과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물구매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2020년 9월에 전국의 소비자 패널 94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패널들의 선물계획은 현금·상품권이 33%, 과일이 21%, 육류가 11%였으나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상품권이 37%, 육류가 20%, 과일이 14%, 건강기능식품이 7% 순이었다.

구입처는 대형마트가 38%, 온라인이 25%, 전통시장이 10%, 전문점이 10%로 나타났는데 선물별 주요 구입처는 과일은 대형마트 35%, 육류는 전문점 35%, 채소는 전통시장 41%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번 설의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4인 가족)은 전통시장이 25만1844원, 대형마트가 32만265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6만8421원(21.4%)이 저렴하였고 품목별로는

채소류(61%), 수산물(27%), 육류(26%)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 우위였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찾고 있는 농산물 시장을 주목해 보자. 여기에는 여주, 망고, 아메모야, 패션푸드 등 수입 농산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그 비중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이 수입 농산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큰 규제 없이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수입농산물 조사결과 수입산 포도, 바나나, 와인은 세계 1~2위로 비싸다고 응답하면서도 저렴하다는 생각에 국산 농산물을 크게 잡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품질만으로 경쟁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국산 농산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판로도 막막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수축산물의 지역 소비는 그만큼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직접 구입해주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광주광역시에는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에 효과가 확인된 발효과학의 총아(寵兒)인 김치가 있다.

그밖에 자연채 한우, 빛찬들 쌀,

토마토, 애호박, 느타리와 표고버섯, 가지, 딸기, 춘설차, 벌꿀, 미나리, 전통메주, 우리밀 가공식품이 백화점, 대형마트, 로컬푸드(11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에게 농식품의 안정공급과 판로 확보를 위해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명품화를 추진 중인 황토 유황쌀(삼도)과 태추단감(임곡), 무등산 수박 등 특산물도 소비자의 인지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선물은 주고받는 과정에 서로 상호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고가의 선물보다는 우리고장의 농수축산물을 추천하고 싶다.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하고 가공, 판매하는 김치, 한우, 쌀, 영지, 춘설차, 벌꿀, 가공식품은 물론 전라남도의 특산품인 영광 굴비와 모싯잎 송편, 나주 배, 여수 돌산 잣, 광양 매실, 고흥 유자, 보성 녹차, 진도 홍주, 영암 무화과, 담양 한과 등도 명절 선물용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생산자를 돕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공직자 모두와 시민, 그리고 도시로 출향한 지역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드린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우리집 안전,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부터

소방청 화재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약 45%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화재 경보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이나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이다.

이웃주민이 경보음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 잠든 사이 발생한 화재에 감지기 경보음

을 듣고 대피하여 신고한 사례와 같은 일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다.

화재 경보기가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낸 것이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나 설

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윌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상담, 설치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추워진 날씨로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시기인 만큼 주택 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김한다(여수소방서소방정대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전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